

비상경제장관회의
23-4-2

제조업 업종별 수출 · 투자 지원방안

2023. 2. 3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I. 수출 · 투자 동향 및 전망	1
II. 2023년 수출 · 투자 주요정책	2
III. 업종별 동향 및 대응방안	4
1. 반도체	4
2. 디스플레이	5
3. 배터리	6
4. 자동차	7
5. 조선	8
6. 철강	9
7. 석유화학	10
IV. 향후 계획	11

I. 수출 · 투자 동향 및 전망

1 수출 동향 및 전망

- 글로벌 경기둔화, 반도체 업황 악화 및 對중국 수출여건 부진 등으로 4개월 연속 수출 감소

* 수출증감률(%) : '22.10 △5.8 → '21 △14.1 → '22 △9.6 → '23.1 △16.6

- 역대 1월 수출 중 최고실적인 작년 1월 수출의 기저효과도 영향
-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, 선박 등 5개 품목은 수출 증가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석유화학, 철강 등 10개 품목은 수출 감소

* 업종별 수출증감률(%) : 선박 86.3, 자동차 21.9, 배터리 9.9 반도체 △44.5, DP △36.0 석유화학 △25.0, 철강 △25.9

- IMF 세계경제전망 상향(2.7→2.9%) 등 긍정적인 기대도 있으나, 高금리·高물가, 반도체 수요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어려운 여건에 직면

* 기준금리 : (美) 4.50~4.75%('23.2, 25bp ↑), (韓) 3.50%('23.1. 25bp ↑)

-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상반기중 업황 악화 지속

* D램 고정價 전망(\$): '22.4Q 2.21 → '23.1Q 1.76 → '2Q 1.56 → '3Q 1.48

- 다만, 中·신흥국 경기회복과 원전, 방산, 조선 등은 수출 개선 돌파구

* 경제전망('22→'23, IMF) : (中) 3.0→5.2%, (신흥국) 3.9→4.0% / * 조선은 '21년 수주 호황 반영

2 투자 동향 및 전망

- '22.4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감소세 전환, 특히 12월은 △7.1% 감소

* 설비투자 증감률(%) : '21.1Q 6 → '2Q 0.7 → '3Q △0.8 → '4Q △0.2 → '22.1Q 0.2 → '2Q △1.2 → '3Q 9.8 → '4Q △0.1

-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투자 반등 가능성 제약

* 국내 기계수주(전월비, %) : '22.9 △25.9 → '10 △15.9 → '11 8.6 → '12 △23.0

- '23년 설비투자는 경기둔화, 고금리 등으로 △2.8% 감소 전망(경정), 특히, 제조업 설비투자는 △8.6% 감소 예상(산은)

- '21.8월 이후 기준금리 2.75%p, 회사채 2.4%p 상승으로 투자여건 악화 ⇒ 다수의 기업이 투자 보류·축소

* '23년 투자계획 조사(전경련 '22.12) : ▲투자계획 없음/미정 48% ▲투자 축소(19%) > 확대(13%)

- 다만, 제조업 10대 업종은 전년 수준인 100조원의 투자를 계획중

Ⅱ. 2023년 수출·투자 주요정책

1 6,800억불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 실현

① **全 부처의 '영업사원化'로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**

- 관계부처·기업으로 구성된 「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」 발족(2월)
- 사우디, UAE 정상 경제외교 협력 모델을 신흥시장으로 확대

② **수출 3大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예산 상반기 집중 지원**

- <무역금융> 수출기업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,
<인증> 해외인증 소주기 지원, <마케팅> 전시회·수출바우처 등 확대

무역금융	360조 → 무보 최대 260조원, 수은 82조원, 신보 14조원, 기보 3.3조원, 중진공 0.36조원
인증	「해외인증지원단」 신설(국표원), 국내기관 상호인정 지원품목 확대(120→150개)
마케팅	전시회 지원 확대('22.上 624 → '23.上 1,000개社), 수출초보기업 수출바우처 신규 지원

- 수출 마케팅·인증·물류 예산의 약 2/3(9천억원)를 상반기 집중 투입

③ **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품목·시장 다변화**

- 원전, 방위산업, 해외플랜트 등 유망분야 新수출산업화
 - * 수주 목표 : (원전) '30년 누적 10기, (방산) '23년 170억불↑, (해외플랜트) '23년 300억불
 - 폴란드·체코 원전 수출을 가시화하고, 필리핀·영국 신규 원전수주 추진
 - 산업협력 연계 방산 수출 등을 통해 '23년 170억불 이상 수주
 - 핵심프로젝트 수주, 친환경플랜트 선점으로 '23년 300억불 수주
- 전략시장, 주력시장, 잠재시장별로 맞춤형 진출전략 전개

전략시장	중동·중남미·EU : 고유가+脫석유+안보 불안 → 원전, 방산, 인프라 수출
주력시장	미국·중국·아세안 : 트렌드 변화 → 새로운 수출아이템 발굴(한류·실버·엔젤·할랄 등)
잠재시장	아프리카·대양주·인도 : 경제발전+인구증가 →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

④ **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역량 결집**

-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수출지원 종합 대책* 마련
 - * '23년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분야별 新수출동력 확충, 범부처 협업지원 강화 등
- 주요 부처별 '23년 수출목표 설정 및 산업부에서 부처별 실적 점검·지원

① 설비투자 : 100조원 민간 투자계획의 신속이행 밀착지원

-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
-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입지·인허가·인프라 종합 지원
 - － ‘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’ 지정(상반기) 및 반도체 등 국가산단 추진
 - －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 체계 마련, 인허가 타임아웃제*(국첨법 §19) 도입, 공공기관 예타 특례(국첨법 §27의2) 등으로 신속한 투자이행 지원
 - *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
 - －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기술·인력·입지 등 종합지원 시스템 마련
 - * ▲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인허가, 기반시설 등 지원
 - ▲ 기존 기술조정위를 “전략산업조정위”로 확대하여 기술·입지·인력·투자 등 통합 조정
- 제조업 설비 및 R&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 정책금융 공급

② R&D 투자 : 전략적 R&D 투자(23년 5.6조원) 및 사업화 촉진

-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R&D 집중 지원
 - * ▲ 초격차 : 반도체, 미래 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→ R&D 70% 이상 집중
 - ▲ 탄소저감 : 철강, 석유화학 등 4대 탄소 多배출 업종 → 9,352억원(23~30)
- 산업기술의 사업화 촉진
 - － 출연연의 기술양도 허용 및 기술창업 활성화로 스타연구자 배출
 - －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(CVC) 적극 육성
 - * 2천억원 CVC 펀드 조성, CVC 투자연계형 R&D 지원, 제도개선 등 추진

③ 외국인투자 :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불 이상 유치

- 첨단·주력·미래산업의 100대 핵심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
 - *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전담팀 구성 및 유치시 보상체계 강화
- 한-UAE ‘에너지 파트너십’, ‘산업첨단기술 전략회의’ 등을 통해 양국간 투자협력 구체화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대

Ⅲ. 업종별 동향 및 대응방안

1 반도체

◇ 하반기 수출회복 기대, 47조원 규모의 투자 지속

- (수출) IT 수요 급감, 메모리價 하락 등으로 수출 둔화세 지속
 - * '23년 1월 고정가격(전년동기비) : ^(D램)\$1.81 (△47%) / ^(낸드)\$4.14 (△14%)
- 하반기부터 서버·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, 주요 메모리 기업 감산효과 등으로 일부 회복 기대
- (투자) '23년 약 4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
 - 다만, 기업별로는 중장기 성장에 대비해 투자계획을 유지하거나, 시장상황을 고려해 투자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중
 - * (A社) 첨단공정 전환 등 설비투자 지속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비
 - (B社) '22년 투자액 대비 50% 이상 축소 계획
 - 미래 경쟁력을 위한 EUV 등 첨단 인프라 도입, R&D 등은 지속

◇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

- (수출) 팹리스, 소부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메모리 高의존 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
 - 전력·차량용 반도체, 첨단패키징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 확보 및 수출전략품목 다양화
 - * (전력) 4,420억('24~'30) (차량용) 6,653억('25~'31) (후공정) 3,580억('25~'31) 예타 추진
 - 국내 소부장 제품 실증 및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지원
 - * 양산성능평가사업('23.5~'24.4) : 국내 수요기업 성능평가비 품목당 3억원 내외 지원
- (투자) 필수 인프라(전력, 용수 등) 구축, 입지지원 등 민간 투자 촉진
 - *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('23년 신규, 1,000억원)
 - * 제3판교 테크노밸리('24~), 용인 플랫폼시티('26~) 추진 등
- 정책금융(5,300억원), 반도체 펀드(3,000억원) 통해 팹리스 투자 지원

2 디스플레이

◇ 글로벌 수요 감소로 상반기까지 둔화, 하반기에는 시황 개선 전망

- (수출)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전년 대비 수출 소폭 증가 전망
 - － 프리미엄 모바일, 자동차, IT 제품 증가로 OLED 수출은 17% 증가
- (투자) '23년 총 1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
 - － 노트북·태블릿 OLED 수요에 대응하여 8세대 신규 시설투자 시행
 - *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 2배 확대(6세대 36장 → 8세대 72장) 및 가격 30% 절감
 - － AR·VR용 Micro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R&D 투자 확대

◇ 민간 적기투자 지원으로 고부가 OLED 수출경쟁력 강화

- (수출) 투명·차량용·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
 - － 투명 OLED 등 신시장 창출형 디스플레이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, 사업화 촉진('23년 56억원)
 - － 무기발광디스플레이(나노 LED, Micro LED) 기술선점(1조원 예타 추진)
- (투자)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, 핵심 소부장 기술을 「조특법」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대폭 확대
 - * OLED·QD·Micro LED 패널기술 및 증착·코팅 소재, TFT 형성 장비·부품 등
 - － 첨단 패널기업 소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지원
 - － 디스플레이 분야 정책금융 9,000억원 공급
 - * 산은, 기은, 신보기금을 통해 패널기업 OLED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우선 대출
 - － 환경·소부장 분야 기업애로 해소로 패널기업 적기 투자 촉진
 - *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도로법상 장비 운행 허가절차 개선 등 검토

3 배터리

◇ '23년 역대 최대 수출 및 국내 생산능력 20% 이상 증가 전망

- (수출) 국내 생산능력 증대로 이차전지 수출 10%대 증가 예상
 - －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증가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지속 확대 전망
- (투자) '23년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
 - － 주요 기업의 배터리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지속 및 양극재·음극재·전구체 등 소부장 기업의 투자도 확대중

* (예) LGES 오창 2공장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, 포스코 핵심소재 생산라인 증설

◇ 국내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어로 해소로 설비투자 확대 및 수출 촉진

- (수출)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, 사용후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美 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
 - － 광물 확보 및 정·제련 프로젝트 추진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5년간 3조원의 대출·보증 지원(무보, 수은)
 - － 민·관 '배터리 얼라이언스'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지속 점검
- (투자) 민간 투자계획의 약 2/3에 해당하는 5.3조원 정책자금 공급
 - －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('23.上)하고, 국내에 핵심기술·고사양 첨단제품 생산의 Mother Factory 구축
 - － 배터리·소부장 기업투자에 맞춰 수준별 인력이 적기 공급되도록 민관 합동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,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
 - － 주요 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목 잡는 애로는 관계 기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촉진

4 자동차

◇ '22년 대비 수출 증가 및 전동화·친환경 투자 확대

- (수출) 친환경차 수요 확대, 신차 효과로 5% 이상 증가 전망
 - － 경기둔화, 高금리, IRA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판매 확대 예상
 - * 수출물량('22→'23, 만대) : ▲자동차 전체 231→235, ▲전기차 22.4→30, ▲하이브리드 28.5→32
- (투자) 전동화 및 친환경 투자, 신차 개발, R&D 및 시설투자 등 '23년 약 16조원 규모의 투자 전망

◇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·선복문제 및 투자 애로 해소

- (수출) 자동차 전용 선박 부족 애로에 대응하여 컨테이너선 활용 지원, 선주-화주간 협조를 통한 여유선복 우선배정 등 지원
 - * 컨테이너선 전문업체가 완성차사에게 수출 절차 대행 서비스 제공
 - * 주기적 선주-화주 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복상황 모니터링 및 여유선복 배정 유도
- － 미국, 남미, 아세안 등 시장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
 - * (미국) IRA 인센티브를 위해 상업용 판매 확대(국산도 75백불까지 세액공제 가능)
 - (남미·아세안) 조립 생산기지 및 수소차 인프라 구축, 수출 연계 ODA 등 지원
- (투자) 전기차 등 공장 투자 확대를 위해 지투·외투·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「미래차특별법」 발의중
 - * 「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」 발의(2월)
- －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에 R&D 집중 투자
 - * 전기·수소차 핵심기술 개발('20~'26, 3,309억원),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('21~'27, 1.1조원) 등
- － 업계 투자 프로젝트와 직결된 핵심 애로 해소
 - * (예) 투자 관련 규제·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및 부지 확보 지원 등

◇ '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의 건조 및 수출 본격화

- (수출) '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올해부터 본격 건조·수출되어, '23년 수출은 '22년 대비 10% 이상 증가 전망
 - * 국내 수주량(만CGT) : ('19) 1,007 → ('20) 828 → ('21) 1,764 → ('22) 1,559
- 특히, VLCC,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*이 수출 견인
 - * '21년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실적은 1,237만CGT로 국내 수주량 중 약 70% 차지
- (투자) 친환경·스마트 선박 프로젝트 등에 총 2조원 투자 계획

◇ 인력난 해소, 금융지원 등 정책역량 집중, 민간투자 촉진 R&D 추진

- (수출) 인력난 해소, 금융지원 확대, 판로 확대에 수출역량 강화
 - 인력양성 지원,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
 - *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('23년 총 108.8억원) :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6개월 지급
 - *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, 외국인력 도입비율을 20→30%로 확대 등('23.1월)
 - RG,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,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* 활용
 - * (대형조선사) 금융기관의 RG분담액 85% 이상 소진시 지원 가능(최대 95%까지 보증)
 - (중소형조선사) 무보를 통해 총 1,20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
 - 조선 기자재 해외마케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(공동 A/S 센터 등) 지원
 - * 중국, 러시아, 싱가포르, 그리스, 사우디, 미국 등 해외거점기지 활용
- (투자) 친환경·자율운항 선박, 스마트 야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'23년 848억원(국비) 지원으로 민간 R&D 투자의 마중물 제공
 - * 총 9개 사업 총사업비 1,144억원(국비 848억원, 지방비 46억원, 민간 249억원)

6 철강

◇ 물량 증가에도 **단가하락**으로 수출은 감소, **新수요 대응**을 위한 투자 지속

- (수출)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세 기대되나, 작년 철강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 및 철강수요 둔화로 수출 일부 감소 전망
 - － 포스코 포항제철소 완전 복구(1.20일부터 전공장 가동)로 **생산량 증대가 예상되나**, 美·EU 수출쿼터, CBAM, 경기둔화 등 **불안요인 상존**
 - * 우리나라의 철강수출 비중 : 아세안 19%, EU 13%, 일본 12%, 중국 11%, 미국 10%
- (투자) **친환경 설비**, 친환경차용 전기강관 및 에너지용 강관 등 **新수요 대응**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'23년 4.8조원 투자 전망

◇ **CBAM 등 대응 주력**, **친환경 투자 지원 강화**

- (수출) 신통상 규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신시장 개척 지원
 - －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, 기업의 규제대응역량 강화
 - －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인도(제조업 활황), 미국(에너지인프라 투자증가) 등 **니치마켓 발굴** 및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추진
- (투자)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'23년 3.6조원 정책금융 지원
 - － 탄소중립을 위한 **친환경 전기로 투자**, **고로설비 개선** 등에 필요한 장기·대규모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
 - * (산은) 철강설비 저탄소전환에 시설자금 금리 최대 △2.6%p 감면,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운영·시설자금 금리 최대 △1.0%p 감면(총 1.8조원)

◇ 공급과잉으로 수출은 부진 전망, 친환경 전환 위한 투자는 적극 추진

- (수출) 글로벌 수요부진 및 美·中발 공급과잉으로 수출 감소 전망
 - 수요가 공급 증가를 따라잡는 '24년 이후에 업황 개선 기대
- (투자)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, 생산능력 확대 및 친환경제품 생산, 친환경 전환 본격화로 전년(2.4조원) 대비 증가한 4조원 이상 투자 계획
 - * (A社) 에틸렌 180만톤 규모 석유 화학 단지 신증설
 - (B社) 열분해유 생산시설, PBAT, POE 등 친환경제품 생산
 - (C社) 가성소다, EDC, EVA 생산공장 신증설

◇ 잠재고객 발굴을 통한 수출 확대,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애로해소 지원

- (수출) 한파,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, 중남미 등 新시장으로 수출 확대
 - * 특히 EU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설비 가동중단, 러시아산 수입 제재로 수급 차질 발생
- 연료 및 원료 전환을 통한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규제정비 등 지원
 - * (기술개발) 탄소중립 R&D 사업 지원('23~'30년 1,858억원), (규제정비) 친환경 신산업 대비 표준산업분류 개정(~'24) 등
- 생분해플라스틱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마케팅, 상호 인정, 금융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EU 시장 진출 지원*
 - * EU 시장에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인정받도록 양자협약 추진
- (투자) 투자프로젝트 기반의 규제 개선 등 밀착지원 강화
 - 사힌 프로젝트(70억불, S-oil) 등 대표 투자프로젝트 집중 지원
 -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, 석화산단 內 녹지율 규제완화 등 투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 신속 해소

IV. 향후 계획

① 수출·투자 촉진을 위한 전방위 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및 실적점검 강화

- 수출, 투자, 지역 등 분야별 현장 규제발굴 체계 구축
 - － 수출 : ‘수출현장지원단’, ‘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’ 운영
 - * 수출·수주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의체(수출지원협의회, 해외건설 수주지원단)와 연계 운영
 - － 투자 : ‘투자·규제애로 접수센터’(상의)에서 현장애로 수시 접수
 - * 2.2일 현재 총 76건 애로 접수(투자애로 17건 포함) → 총 6건 해소(투자 1건)
 - － 지역 : 시·도별 ‘투자 및 수출 관련 지원협의회’ 운영
 - * 1.9일부터 경남을 시작으로 14개 시·도 지역 현장방문중
- 산업계가 제기하는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 추진(관계부처 협의)

< 주요 업종별 핵심 건의 예시 >

반도체	통합환경허가제도에 따른 부담 완화	배터리	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 상한 확대
바이오	병원간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 등	자동차	부품공장 건설을 위한 용지 용도변경
조선	E-7 요건 완화, 전용 고용허가제 신설	화학	폐플라스틱 공급 안정화 필요

- 매월 산업부장관 주재 ‘수출상황점검회의’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 점검

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“현장 산업부” 추진

- UAE 순방 후속조치, 규제개선 체감도 점검,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 소속원의 적극적인 현장 행보 추진
 - － 2월 초까지 총 94건의 현장방문 진행 → 쏘실무진 현장소통 강화
- 기업 소통 강화를 위해 ‘업종별·기능별 릴레이 현장점검 회의’ 개최
 - * (업종) 디스플레이, 철강, 바이오, 배터리 등, (기능) 환경, 지역, R&D, 인재 등

③ ‘산업대전환’을 통한 중장기적 수출·투자 성장 도모

- 투자, 인재, 생산성, 기업성장, 글로벌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
 - － 민·관합동 「산업대전환 전략」을 통해 구체적 혁신방안 발표('23.上)

산업대전환 프로젝트 민간제언(안)

- ▶ 투자 : 미래기술 확보에 전략 투자하는 ‘국가투자지주회사’(K-테마섹) 설립
- ▶ 인재 : 글로벌 인재 유치·정착을 위해 ‘우수인재 레드카펫’ 도입(신속입국, 장기거주 지원)
- ▶ 기업성장 :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‘초·중·고 교과서 개편’, 新비즈니스 발굴·육성